

강론 ...

## 생명의 길



이완재 신부  
(서학동 성당 주임)

캄캄한 밤중에 올빼미 한 마리가 밤나무에 앉아 있는데 다람쥐 형제가 올빼미를 골려주려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이놈들!” 하고 올빼미가 근엄하게 한마디 하자 어둠 속에서 자기를 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다람쥐 형제는 겁에 질려 물었다. “누굴 보고 그러시죠?” 그러자 올빼미가 대답했다. “너희 두 놈을 보고 그러다.” 이 말을 들은 다람쥐는 숲속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저기 밤나무 위에 신령님이 계신다.” 하고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동료들도 이 일을 확인한 후 올빼미를 자기들의 교주로 모셨다. 어느 날 산 짐승들은 올빼미를 구세주로 모시고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중 서서히 먼동이 트기 시작 하자 올빼미는 여기저기에 몸을 부딪쳤고 날이 밝자 올빼미는 벼랑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같이 따라가던 다람쥐가 위험을 느끼고 올빼미에게 “구세주님 무섭

지 않으세요?” 하자 올빼미는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고 올빼미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함께한 동물들도 종교 의식이라 생각하고 떨어져 죽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생명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시는 부르심이 있다.

제1독서의 사무엘이 그렇고 오늘 복음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그렇다. 이 부르심에의 응답은 올빼미를 선택해서 죽어간 그런 선택이 아니다. 이 선택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듯 내 삶 전체가 바뀌는 선택이다.(성서에서 이름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완전한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원한다면 시몬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요한 6,68)

### 입당송

은 세상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사무 3,3ㄴ-10,19

화답송 시편 40(39), 2ㄱㄴ과 4ㄱㄴ, 7-8ㄴ, 8ㄷ-9,10  
(◎ 8ㄴ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제가 왔습니다.

제2독서 1코린 6,13ㄷ-15,7,17-20

### 복음 환호송 요한 1,41,17ㄴ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은총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 복음 요한 1,35-42

### 영성체송 시편 23(22), 5 참조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내가 곧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리라. 무릇 이 제사에 빠지는 자는 살아 남지 못하리라.”  
(열왕하 10,19)

## 너 명의 향방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삶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은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숭고한 목적을 두고 뜻을 세울 때에도 끝날의 영광을 생각한다. 희생이나 헌신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죽음이나 절망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삼기는 어렵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길한 운명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늘이 가늠하는 복된 가치가 있기는 하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그를 위해 헌신하기란 어려운 것만 같다.

바알 숭배의 근절을 위한 예후의 계책이 발표되었다. 노골적으로 잡으려 하면 숨거나 도망을 갈 것이다. 그들을 모아 들으려면 오히려 유인을 해야 한다. 왕을 죽여 옥죄를 찬탈한 예후였기에 우상숭배의 전격적인 발표는 백성들을 민게 만들었다. 바알 예언자들과 사제들이 모여 들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죄가 많은 세상이라야 우상숭배가 활기를 찾는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다. 심판의 칼날이 닥쳐온 것이다. 바알 예언자들이 죽고 신전은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바알 예언자들과 사제들이 이방인들이었던가? 그렇지 않다.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예언자요 사제로 불리움을 받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느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 신전을 세웠고 하느님을 뵈히 보면서도 우상을 섬겼다. 하느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율법의 힘든 명에보다는 다산과 풍요를 비는 세상적 축복에 눈을 돌렸다. 음험한 죄악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느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하느님은 우상숭배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시다. 예후의 계략 뒤에는 하느님의 뜻이 숨어 있었다. 하느님만을 섬기던 사제들은 암흑의 날이 왔다고 절망하며 목숨바칠 각오를 하였지만 결국 광명이 찾아왔다. “세상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느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으실 때부터 이런 날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목숨을 부지할 운명의 향방에 민감하기보다 올바른 마음으로 삶을 끝낼 비장함이 나올 것이다. 세상 흐름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이 살길이니 올바른 이는 괴로워도 언제까지 그러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정정 : 1월 8일자 숲정이 성인과 영성 제목이 십자가의 성 요한  
→사도 성 요한으로 정정합니다.

## 밀알

“**하느님 제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당신께는 더 좋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입술보다는 발걸음이 더 좋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침묵속에 만남 卍 - 토마스 머턴)

## ‘꿈은 이루어 진다’

새해 첫날 어찌하다보니 TV 방송 3사의 올 6월 독일 월드컵 특집 프로를 모두 볼 수 있었다. 6회 연속 진출의 위업을 이룬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성된 세 나라의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였다. 여론 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16강에 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볼 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였다.

간간이 비춰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일군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의 감격과 흥분이 되살아났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붉은옷을 입고 구름처럼 몰려와 거리를 메우고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강한 신념과 믿음 아래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응원하고 염원하고 갈망한 결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4강 신화를 창조, 그야말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해가 바뀔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희망’의 의미를 생각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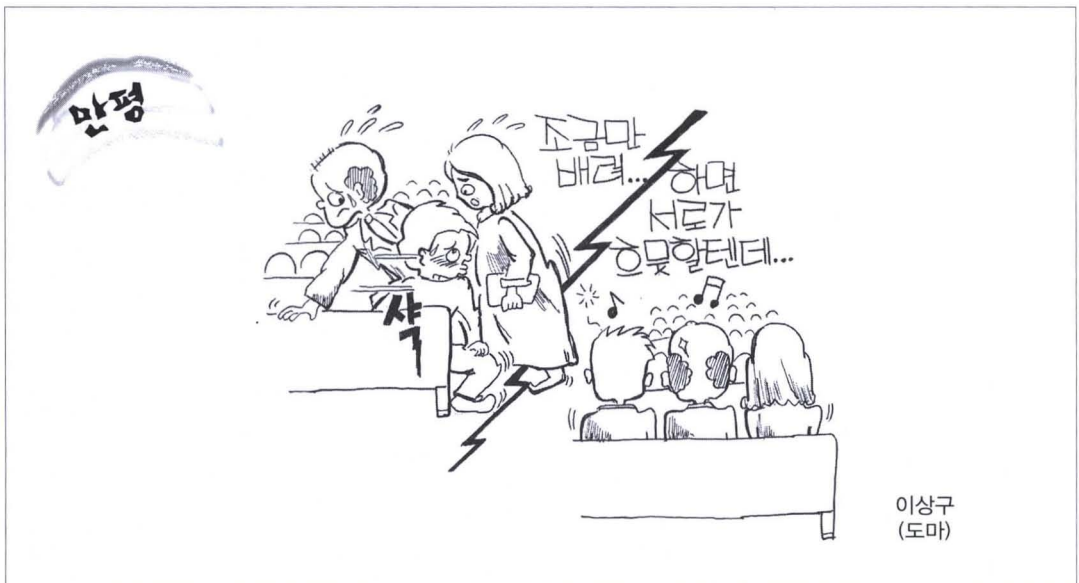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여 그 조각상을 어루만지고 보듬으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하며 신들에게 조각상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에 감동하여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간절히 희망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유래

하였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꿈과 목표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정신으로 가정 사회 국가 교회 안에서 갈등 대립 불신을 떨치고 화합과 평화,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선물로 주어진 올 한해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으면 좋으리라.

글 : 박종희(이나시오)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 **금암동 성당 관내 경로당 위문품 전달**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지난 1월 7일(토) 본당 관할구역내 북부경로당을 비롯 11개 경로당에게 과일과 화장지, 달력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기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화요헌금으로 이루어진 이날 위문품 전달식에서 김요안신부는 “조그만 정성이지만 그동안 본당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이웃 사랑이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펼쳐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수도 기자

모인 어른들은 학창시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수 기자

● **나은 2동 성당 새 꾸리아 탄생**



나은 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본당 설립 6년 만에 1개 꾸리아를 새로 증설하여 1월 8일(주일) 첫 회합을 가졌다. 지난 2000년 본당이 설립되면서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로 시작한 나은2동 본당은 그동안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새로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단장=정경만)를 탄생시킨 것이다. 꾸리아 회합전 이영우 신부는 꾸리아 회합과 교육관으로 새로 구입한 컨테이너 건물 명칭을 성 요셉 교육관으로 정하고 축성식을 가졌다.

|오안라 기자

● **군산지구 젊음이 내리는 밤**



지난 1월 8일(주일) 오후 2시부터 군산지구 중고등부는 지곡성당에서 2005년도 젊음이 내리는 밤 행사를 가졌다.

지구장 안철문 신부의 축사와 축가, 신원철 지도신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지구 내 12개 본당에서 15개 팀이 본당별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한자리에

● **삼천동 성당 사목회 임원 연수회**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1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사목회 임원 연수회를 열었다. 41명이 참석 '2006년도 교구장사목지침'과 '본당 사목지침'에 대해 주임신부의 설명을 듣고, 각분과별 사업계획 발표와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뒤 파견미사를 드렸다. 본당의 올해 사목 방향은 주교의 사목지침에 맞춰 선교에 중점을 두고, 1인 1명 전교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500명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분과에서는 가두선교와 100만단 묵주기도 바치기 등 본당 선교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느라 밤을 지새울 정도로 진지하고 열띤 의논을 했다.

|서송원 기자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정영주(요셉파나)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스스로한의원**  
 원장: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타트 야외주차장 앞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모든 검도인의 자부심과 희망의 공간  
 최고의 시설을 갖춘 16년 전통과 명성의  
**세심검도관**  
 국가대표출신, 검도 7단, 18년 대학강의 겸임교수  
 이학박사 김태경(빈첸시오) 직접지도  
 서신동 본병원 옆  
 ☎(063)224-5455  
 H·P 011-657-9965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소리를 추구합니다.  
**독일보청기**  
 김재점 : 구 간이배치장앞(546-3652)  
 부안점 : 부안단위능협앞(581-3537)  
 이길재(베드로) 김해숙(살비아)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 최성 양(루가)  
 전문의 안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길

**광재,리 헤어패밀리**  
 대표 : 이광재(그레고리오)  
 (영업시간) 08:30 ~ 23:00매주 화요일 정기휴  
 일/매주 수요일 20% DC  
 ◆ 모닝파마 실시◆  
 중화신2동사무소 옆  
 문의 : (063)236-5767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요한 15,16)

김경수(사도 요한)

7년 전 신학교에 합격한 그 기쁨은 표현하기 힘들만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족한 내 자신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사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도 벽찬 가슴 한 구석에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는 이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저를 통해 또다른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용기와 사명감을 심어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시편 27,1)

전보근(안드레아)

언젠가 신학교에서 성무일도를 바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성구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자신을 사로잡는 그 무엇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자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이 ‘빛’을 한껏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구원’이자 ‘우리’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지난 제 삶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그 빛을 하염없이 ‘나’,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우리’를 비추어 주심에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아울러 제가 사제로서 주님의 빛을 한껏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파스한 사랑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은 저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성현상(스테파노)

6학년 여름 한 달 피정 때였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음을 던졌다. 그러던 중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내가 오늘 너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보아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아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겼듯이 너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철저히 죽으라는 소리였다. 내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소리였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두려워 하지 마라...”**

(마태 28,10)

박성환(요셉)

저를 당신의 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충실한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고자 하는 서품 성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야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마태 28,10)입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언젠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늘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세의 삶에 이끌려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족한 인간인 제가 사제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저는 이 성구를 통해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저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작고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해야 하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늘 기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겠습니다. 또한 제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사제가 되겠으며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로 불러주셨던 첫 마음의 자세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이를 실천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7-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젼인아트**  
 전진아(살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100번 수산**  
 삼천동 농협 공판장내  
 홍어, 조기, 갈치 외 고급생선 도·소매  
 227-7877 / 010-7153-8045  
 이미숙(리디아)

**2006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종교미술학부 편입생 모집**  
 모집인원: 회화 / 조소전공 8명  
 (학사편입 5명 포함)  
 원서접수: 2006년 1월 19일(목)~20일(금)  
 전형방법: (실기고사: 포트폴리오 제출)  
 학사편입은 실기고사 없음. / 홈페이지 참조  
 문의: 종교미술학부 교무과 032-438-8131-4

**한국 외방 선교회**  
 일시: 1월 22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가톨릭센터  
 문의: 010-6269-1, 02-3673-2525  
 비고: 신교사제를 희망하는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고등학생, 대학생,  
 만 30세 이하 미혼남자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학교**  
 일시: 2월 10일(목) 오후 2시~14일(일) 오후 3시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대상: 고교생이상 만 31세이하의 미혼 남녀  
 준비물: 신앙성서 사면·필기 도구, 작업복,  
 참가비(3만원)  
 문의: 019-9353-2323(선착순 25명)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슬레시(수도회) 돈보스코 직업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25세 남자, 중증퇴 이상  
 부문: 기계과(기계조립) 1년과정 50명  
 교육: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 및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졸반운영, 방통교 편입학 지  
 도, 취업알선  
 전형: 2006. 2. 24까지 수시접수, 면접 및  
 적성평가  
 문의: 02-833-4010

**직원 채용 공고**  
 직종 및 문의: 사회복지사 0명 / 222-2786  
 채용분야: 행정 업무 및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응시자격: 1980년 이후 출생자, 운전가능자,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기  
 소개서 각 1부  
 일시 및 제출: 2006년 1월 20일까지(우편, 내사)  
 소화전달내접



교구장 일정

- 성지 담당자 모임  
1월 16일(월) C.C.K 오전 11시
- 광주신학교 이사주교회의  
1월 18일(수)~19일(목)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기관 신년하례식  
1월 20일(금) 오전 11시
- 재무평의회  
1월 20일(금) 오후 2시

미사 · 행사 · 모임

- 전주지역 사제양성 후원회 미사 새사제 첫미사  
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앙
- M.B.W 전국 폰비벤자  
1월 16일(월)~19일(목) 대구
- 가정사목 위원회  
1월 16일(월)~18일(수) 제주 이서돌
- 10차 신입 교리교사학교(직장인)  
1월 17일(화) 오후 7시 센터
- 9차 신입 교리교사학교  
1월 18일(수)~20일(금) 해월리
- 교구 기자단 모임  
1월 21일(토) 오후 5시 센터
- 혼인강좌  
1월 22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 모임  
취소되었습니다
- 동전주하사회 미사  
1월 22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 가정교리  
2월 6일(월)~7일(화) 오전 9시 30분 윤희관  
대상 : 초등부 교리교사, 가정교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 가정교리에 관심있는 신자  
내용 : 가정교리 방법론, 교과내용 설명, 수업의 실제  
참가비 : 부모담당연수 : 50,000원  
어린아담당연수 : 45,000원  
신청 : 가정사목부 FAX 285-0049  
마감 : 2월 2일(목)

교육 · 피정 · 연수

- 사회교정사목 상담 봉사자 교육  
1월 18일(수) 오후 1시
- 청년 성서 34차 마르코 연수  
1월 19일(목)~22일(주일) 나바위
- 재무평의회  
1월 20일(금) 오후 2시 교구청
- 10차 신입 교리교사학교(직장인)  
1월 21일(토)~22일(주일) 해월리
- 평신도 지도자 교육(2.1~28)  
신청 : 24일까지 교구청 사목국

- 1월의 영화  
제목 : 웰컴투 동막골  
내용 : 미움과 대립을 통해 참된 평화의 의미를 주고 있는 영화로 순수한 동막골 사람들 모습에서 따스한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영화.  
일시 : 1월 18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문의 : 흥보국 285-0041 / 상영시간 133분
- 부부성장을 위한 교육(8주간)  
내용 :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대상 : 부부(신착순 5~7쌍)  
장소 : 가톨릭 센터  
회비 : 1인당 70,000원  
신청 : 가정사목부 FAX 285-0049  
마감 : 2월 2일(목)
- 가정분과 · 여성분과 위원교육  
2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3층  
대상 : 가정분과위원, 분과 여성분과  
회비 : 10,000(중식, 미사 있음)  
준비물 : 미사준비  
마감 : 2월 2일(목)
- 전주가톨릭신학원 파견미사  
대상 : 말씀의 봉사자 3기, 교리교사(정, 준) 7기 말씀의 봉사자, 교리교사 갱신 신청자  
일시 : 2006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강당

\*신학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모두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학원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모두 초대 합니다.

기타

- 대야성당 FAX번호 변경  
FAX : 451-6592
- 솔내성당 사무원(여) 모집  
자격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받았는지 3년 이상 된 분,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비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문의 : 254-2777

알림

-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대상 :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장소 : 대전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 042-534-8876, 527-5514  
성체 선교 글라라 수녀회
- 미혼여성을 위한 피정  
주제 :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장소 : 인보성체수녀회 전주본원  
일시 : 1월 21일 오후 3시  
문의 : 011-380-5159, 284-3231

**폭설 재해성금**  
부산 우정본당 500,000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서울관구) 10,000,000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논산지구) 800,000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신년 하례미사  
일시 : 1월 21일(토) 오후 1시~3시 30분  
장소 : 화산동 성당  
대상 : 전주교구 빈첸시오회 활동회원 전원(약 150명)  
문의 : 221-9842, 018-628-2929

**교사초빙(해성 학원)**

- 1.교사초빙 학과 및 인원  
영어 0명, 수학 0명, 음악(성직자 또는 수도자) 0명, 종교(성직자 또는 수도자) 0명
- 2.자격  
교원 임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3.제출 서류  
①이력서 ②자기소개서(A4 2매이내)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사본 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교원자격증 사본 ⑦호적 등본
- 4.제출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학교법인 해성학원(가톨릭센터 내) 285-0041
- 5.접수기간  
2006년 1월 12일(목)~18일(수) 오후 4시까지
- 6.전형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성심여중 · 고 및 해성중 · 고 홈페이지 참조

<제19대 전주교구 평협 운영위원 명단>

직책	성명	세례명	본당
상임고문	위상양	프란치스코	중앙
	서동호	바오로	화산동
부회장	강상근	미카엘	평화동
	김정규	헨리코	우전
	배선진	아우구스티노	미룡동
	김관식	올리우	전동
감사	장옥희	실비아	평화동
	박용철	스테파노	서일
	원수관	야고보	전동

사무총장	심연무	아우구스티노	숲정이
사무국차장	김학병	하상바오로	우림
사무국차장	김미라	말가리다	평화
기획위원장	박찬길	스테파노	서신동
전례위원장	한태순	사라	중앙동
교육분과 위원장	박병래	마르코	송천동
사회복합화 분과위원장	최병영	바오로	덕진
환경·가정생활 분과위원장	이경애	유스티나	서일
친교분과 위원장	양승상	바오로	서신동
문화·홍보분과 위원장	유백영	가브리엘	이중
청소년분과 위원장	이영희	T.아퀴나스	화산동
여성분과 위원장	박온순	유리아나	이중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박중선	마티아	화산
연구위원장	김영곤	아타나시오	숲정이

정정 : 1월 8일자 숲정이 8면 타교구에서 보내온 폭설재해 성금 현황 2005년 1월 2일 →2006년 1월 2일, 한국순교복자수도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로 정정합니다.

# 동전주 지구 본당 소식

## 고 산

주임번호: 263-4019 사무실: 262-4171 주임번호: 이태주  
수녀원: 263-4110 서목회장: 김종서

1. 성가정회 결성모임: 22일(일)공식미사후(30-50대 남녀)  
(계시관 참조바람)
2. 구정합동 위령미사: 29일(일)10시30분 \*미사에물 사무실에서 접수
3.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및 꽃값을 사무실에서 접수  
\*개인용 초는 봉헌축일 축성후 구입바람
4. 신입교사 연수: 18일(수)-20일(금)
5. 차량 봉사회 모임: 24일(화) 저녁미사후(늦은바위 교리실)
6. 교무금 및 센터신축금을 월 분납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7. 금주 모임: 일-울드레아회, 자모회, 청년회 총회, 수-대건회
8. 금주 성당청소: 삼기, 종리구역
- 지난주 봉헌금: 1,140,000원 ■ 교무금: 375,000원
- 재해의연금: 508,000원

## 용 진

주임번호: 244-3218 사무실: 244-3217 주임번호: 서철승  
F A X: 243-3217 서목회장: 이부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Jcatholic>

◎ 주민들 23명이 또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기소 되었습니다.  
본당신자는 1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철승(가톨릭)신부, 이종식(요한), 이옥순(마리아), 김이순(리브가), 박남신(소화테레사), 심춘애(마리아), 최만열(도밍고), 김선중(벤첸시오), 유덕례(요안나), 임대봉(프란치스코), 한명자(베로니카)

1. 금주모임: 요세희, 셋빛회 - 교중미사 후
2. 차주모임: 하상회 - 교중미사 후
3.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접수: 27일(금)까지 사무실에 해 주세요.
4. 금주청소: 신촌 구역 - 차주청소: 두억 구역
- 지난주 봉헌금: 531,000원 ■ 교무금: 480,000원

## 금 암

주임번호: 251-1912 사무실: 251-1911 주임번호: 김오연  
F A X: 251-3850 수녀원: 253-C025 서목회장: 나안구

◎ 새가족 찾기 운동: 나가자! 선교하자! 인도하자!

1. 설(구정) 합동 위령미사: 29일(주일), 예물접수 - 사무실(27일까지)
2. 예비신자 모집: 교리사과 수요반 - 2월1일(수) 전 10시  
목요반 - 2월2일(목) 후 7시30분 일요반 - 2월5일(주일) 전 8시
3. 주님봉헌축일: 2월2일(목) 후 7시30분  
※ 제대초 및 가정초 봉헌: 개인 및 단체, 프레시디움(2월1일까지)
4. 2005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2006년도 교무금을 신입바랍니다.
5. 새가족센터 신축을 위한 봉헌금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6. 금주 모임: ① 문화회 -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 10구역 남성구역 모임: 19일(목) 후 7시30분  
③ 안나회 - 20일(금) 전 10시
7. 유아세례: 21일(토) 후 3시 8. 감사헌금: 익명 20만
- 지난주 봉헌금: 1,883,900원 ■ 교무금: 2,376,000원
- 재해의연금: 629,900원

## 우 아

주임번호: 241-1273 사무실: 241-1274 주임번호: 권이복  
F A X: 241-1275 서목회장: 도승남  
홈페이지: <http://www.wooa.or.kr>

◎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요.

◎ 세포가 살아야 온몸이 살지요? 반모임은 본당의 세포입니다.

◎ 전년도 교무금 완납과 금년도 교무금 수입을 부탁드립니다.

1. 금주 모임: ① 대건회 - 교중 미사후  
② 성심회 - 19일(목) 미사후
2. 차주 모임: ① 푸리아 월례회 - 교중 미사후  
② ME 모임 - 주일 저녁 미사후
3. 설(구정) 합동위령미사 접수: 27일(금)까지 사무실에 신청
4. 1년동안 제대에서 사용될 제대초 봉헌 및 가정초 신청 받습니다.  
2월 1일(수)까지 사무실, 제대회에 신청해 주세요.
5. 감사헌금: 익명 10만
6. 차주 성당청소 및 미사안내: 구세주의 모친Pr.
- 지난주 봉헌금: 1,162,150원 ■ 교무금: 1,556,000원

## 봉 동

주임번호: 261-1005 사무실: 261-1004 주임번호: 범영배  
F A X: 261-1006 서목회장: 김진호

1. 금주모임: ① 성모회, 울드레아, 가리마스회 - 공식미사후.  
② 돈보스코회 - 18일(수)후8:00
2. 차주모임: ① 안나회, 요세희 - 공식미사후.  
② 여성분과회, 한재권회 - 공식미사후.
3. 구정 합동위령미사예물 2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4. 금주전례: 해설-김병현 독서 및 복사 - 원문환, 이준희.  
제물봉헌 - 황호경(마오로)부부.
5. 차주전례: 해설 - 원문환 독서 및 복사 - 박원도, 정희숙.  
제물봉헌 - 강일봉(미카엘)부부.
6. 미사안내: 금주 - 구세주의 어머니pr. 차주 - 자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840,500원 ■ 교무금: 1,130,000원

## 인 후 동

주임번호: 243-5223 사무실: 242-5022 주임번호: 함기훈  
F A X: 241-8317 수녀원: 245-8875 서목회장: 황국현  
홈페이지: <http://fir.catholic.or.kr/jnh59>  
정년키편: <http://cafe.daum.net/christhaha>

◎ 초(가정 제대) 축복 및 봉헌 - 2월5일(일)교중미사 중  
※ 2월19일 주님 봉헌축일을 맞이하여 제대초 봉헌 받습니다.  
2006년 한해동안 사용할 제대초, 제대꽃 봉헌해 주실분은 2월2일(목)까지 서품 판매소에 신청 바랍니다. ◎ 성경포부양: 각 가정에 매달(10,000원) 배부해 드립니다. 세 선정: 31,000원 ◎ 울드레아 - 19일(목)후8시에서 22일(일)후7시까지 변경. 주모임: ① 안나회 - 20일(금)전10시 2. 여성 세 22일(일)후7시로 교육: 19일(목) - 20일(일) 전후 교회의 집 ※ 참가자: 박원환(세실리아) 한혜순(에라벨리아) 백정희(안나)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산회회 동산대회(거주사 약 2시간 소요): 15일(일)후2시30분 성당집결  
※ 부부 참석 환영 4. 2006년도 영성체 가정 교리반 모집 ※ 대상: 06년 도3-6학년에게 재학하는 초등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 5. 미납된 교무금, 교구신축헌금 납부하시고 6. 2005년도 교무금 수입 바랍니다. 6.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익명, 김복순 각 100만, 김하복 50만, 유미옥, 김문자 각 30만.

7. 감사헌금: 익명, 김복순 각 10만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32,400원 ■ 교무금: 762,000원
- 폭설피해 재해의연금 2차 현금: 575,480원

## 소 양

주임번호: 244-1771 사무실: 244-3007 주임번호: 양재철  
F A X: 244-3010 서목회장: 유영수

◎ 오늘은 연중 제 2주일입니다.

1. 금주 모임: 울드레아 -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전래단, 구역방장모임 - 공식미사 후
3.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28일(토)까지 사무실에 봉헌바랍니다
4. 제대초 및 가정초, 제병, 제주 봉헌바랍니다.(성물방)
5. 교구신축헌금 및 교무금: 월별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입을 환영합니다: ① 조은안(마르코), 서정애(발바라)가족  
② 김영복(마오로), 이한은(바울라)가족 ③ 황순자(말파)자매
7. 차주전례: 해설 - 유영철, 독서 - 허윤성, 김경숙  
기도 - 김정숙 복사 - 김수현, 유원훈  
예물봉헌 - 김진천(마태오), 이점순(아가다) 부부 차량은행 - 정영철(비오)님
8. 성당 청소: 청년회
- 지난주 봉헌금: 577,400원 ■ 교무금: 481,000원 ■ 2차헌금: 226,700원

## 중 앙

주임번호: 277-1713 사무실: 277-1711 주임번호: 권동준  
보좌번호: 278-1713 수녀원: 277-1714 보좌번호: 양승권  
F A X: 253-1714 서목회장: 박동근

◎ 자세한 공지사항은 중앙성당 소식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교무금을 정성껏 신입 바랍니다.

1. 새 사제 미사: 1월 16일(월) - 2월 12일(주일)교중미사 중
2. 설날합동위령미사 예물 신청받습니다. (접수처 - 사무실)
3. 매일 성서쓰기(구약성서): 1월 셋째주(1월16일(월) ~ 1월22일(주일))  
사무일기 상권 7장부터 ~ 10장까지 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58,700원 ■ 교무금: 4,742,000원
- 폭설피해 재해의연금: 954,300원

## 아 중

주임번호: 244-2268 사무실: 244-6768 주임번호: 전종복  
F A X: 244-6767 수녀원: 244-6762 서목회장: 홍상준  
홈페이지: <http://www.ajung1004.net>

1. 금주 모임: 구역장 모임 - 18일(수)미사후
2. 제대 초 및 가정 초 접수: 1월 31일까지 사무실이나 성물방에 신청바랍니다.
3. 견지 신청 접수 ① 일지: 3월 12일(일) 교중미사 중  
② 대상: 중학생 이상 ③ 접수 마감: 2월 5일(일) 까지. 기일 엄수  
※ 자세한 사항은 계시관을 참조 바람
4. 가톨릭센터 건립 기금: 지원 3세대, 신입에 190만원  
신입 총 제대는 170세대, 신입 총액은 8,098만원, 감사합니다.
5. 유아세례 안내: 21일(토) 오후 3시, 19일(금) 오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6. 설날 합동 위령 미사 예물은 27일(금)까지 접수 바랍니다.
7. 봉헌의 모은 푸리아 월례회 미사: 20일(일)전 9시.
8. 희망의 모은 푸리아 월례회 미사: 20일(일)전 9시.
9. 오늘(15일)은 사제 양성 후원회비 수납 주일입니다.
10. 감사헌금: 김성영, 한미선 - 각 10만원, 익명 - 15만원, 감사합니다.
11. 금주 청소: 8구역 1,2번
- 지난주 봉헌금: 1,949,650원 ■ 교무금: 450,000원

## 호 성 동

주임번호: 241-0075 사무실: 241-1140 주임번호: 현유복  
보좌번호: 243-5733 수녀원: 244-0094 보좌번호: 박연영  
F A X: 241-1226 홈페이지: <http://hosong.or.kr> 서목회장: 이영수

◎ "축" 부제 수품! 이용재(요세) 부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비자 교리반 모집: 입교식 - 2월12일(주일)교중미사 중
2. 2005년도10월 임교하신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22일(주일) 교중미사 중  
※ 예비자들은 대부, 대모와 같이 전원 참석바랍니다.
3. 설 명절(구정)합동위령미사: 29일(주일), 예물접수-27일(금)까지 사무실
4. 초 축복식: 2월5일(주일)교중미사 중, 제대초 봉헌하실 분, 가정 초 축복  
받으실 분, 1월3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가정-개당2,000원)  
※미사 때 사용할 제물(제병, 미사주)봉헌하실 은인 구합니다.(접수-사무실)
5. 주간모임: ①안나회, 푸른솔 어머니회-20일(금)오전미사 후  
②청년성가대 단합대회-20일(금) 오후7시 출발→우레주 리조트
6. 교구청 신축헌금 신입: 지난해-1,250천원, 누계-269,580천원※감사합니다.
7. 감사헌금: 익명 2인-각 5만원※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21,330원 ■ 교무금: 2,102,000원 ■ 2차헌금: 938,08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1월 6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3,621,775	24.15%
사제단	1,000,000	479,956	48.00%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382,564	25.50%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4,706,103	26.15%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여산
- 신축기금 배정액 40%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봉동, 중앙, 서신동, 상삼례, 팔복, 대야, 월명동, 조촌동, 팔마, 신태인, 쌍교동, 진안, 금마, 나바위, 황등, 원평, 장수, 숲정이

### 2006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 (2년과정)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끝까지 퍼져나갔다.” (로마10,18)

전주가톨릭신학원은 성서와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진리와 그 유산을 정확히 습득하고 이를 전파할 평신도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1. 모집학과

학과	과정	모집인원	전형방법	면접 일시
교리교육과	신앙의 심화 정교리교사 양성	20명	서류전형 면접	2006년 2월 4일(토) 14:00
신앙연수과	신앙의 심화 준교리교사 양성	20명		2006년 2월 4일(토) 14:00
성서교육과	성서의 심화 말씀의 봉사자 양성	20명		2006년 2월 3일(금) 14:00
성서연수과	성서 기초	전주주간 150명/야간 50명, 군산 120명, 익산 70명, 납원 50명(면접없이 서류전형)		

#### 2. 지원자격

- 1) 수도자 및 평신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연령과 학력제한 없음)
- 2)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1년 이상 된 자(단, 성서연수과는 제외)

#### 3. 원서교부와 접수

- 1) 기간 : 2006년 1월 16일 ~ 2월 3일
- 2) 교부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각 본당 사무실
- 3) 접수처 : 전주가톨릭신학원 (우편접수가능 561-856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3)

“평신도 교육이 교구의 우선 순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고, 전 공동체의 노력이 이 목표에 집중되도록 사목활동 계획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바오로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중에서

전주가톨릭신학원 <http://cate-ins.com>